

제주특별자치도의 Daum 유치 성공사례

(A Successful Case of Attract Daum Communications b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양 성 국* · 고 성 효**
(Sung-kuk Yang · Seong-hyo Ko)

목 차

- I. 서 론
- II. 이론적 고찰
- III. 사례분석
- IV. 결론

I. 서 론

오늘날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불문하고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양극화 문제이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울과 지방의 격차라는 독특한 양극화 현상과 교육, 의료, 문화, 기타 편의시설 등 생활에 관련된 모든 기능이 거의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및 양극화 현상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발전을 가져온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현상으로 생각된다.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교수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교수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서울 및 수도권이 부, 교육, 문화, 지식, 정보, 지방의 우수인재 등을 모두 흡수하고 있는 동안, 지방은 상대적으로 상실의 시대를 걸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소득 격차 확대, 집 값 폭등 등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삶의 질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개인은 물론 기업들까지 수도권에서 탈출하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도시권과 농어촌간의 여러 가지 불균형 요소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생활기반을 확충하는 등 지역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전영옥 외 2003)

2003년 6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침'이 발표된 이후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및 이전과,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통하여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등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지방투자유치 지원제도는 IMF 위기를 겪으면서 외자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이성봉 2010) 지방투자유치 지원제도는 크게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제도와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지원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제도는 조세, 재정, 금융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신규 고용창출, 지방세입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이우배 2001, 박홍운 2006) 즉,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유치와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기업유치 전략 및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기업유치의 성공적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에서는 Daum으로 표기) 유치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기업유치 성공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성공적인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 이론적 고찰

2.1 기업유치의 개념 및 선행연구

기업유치는 국내·외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을 자기의 지역 내로 유치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기업유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지역이라는 장소 상품을 고객인 기업에게 마케팅 하는 과정이며,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투자나 이전을 위해 입지를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김성관 2008) 그런데 기업들이 본사나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기업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생각보다 어렵고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기업유치는 그 대상에 따라 국내 기업유치와 해외 기업유치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기업유치는 국내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을 자기 지역 내로 이전 또는 신설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기업이 자기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새로운 고용창출, 소득증대, 관련 산업의 발전, 선진기술 이전, 기업문화 전수 등 다양한 측면의 효과가 발생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 조세감면, 저렴한 부지 제공, 행정 편의 제공, 기업 지원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무분별한 기업유치에 대한 부작용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내 기업 및 자본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유치경쟁은 제로섬 게임에 해당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Burstein & Rolnick 1995) 즉, 단순한 지역 간 소득의 재 배분 효과 정도만 발생할 뿐 큰 이익이 없고, 지방자치단체들 간 불필요한 갈등만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이전시키는 문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다.(박홍식 외 2001)

해외기업 유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역과 경쟁하여 외국기업을 자기 지역 내로 끌어들이려는 활동을 말한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일반적으로 현지 국가의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모의 투자로 외국인 1인이 주식 또는 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한 경우이다. 이러한 투자는 신규회사의 설립이나 확장, 기존 기업의 인수·

합병(M&A), 모기업 및 관련 기업으로부터 5년 이상의 대출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김성관 2008)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를 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유치를 하는 경우 무분별하게 외부기업을 유치하기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적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치된 기업이 지역 내 산업구조와의 연관성이 미흡하거나, 지역 내 다른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관련 주체들과의 연계성이 부족할 경우 기업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윤갑식 2011)

기업유치는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는데 국내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기업유치 전략과 지원제도 등에 대한 연구가 많고 기업유치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표 1> 선행연구 요약

| 연구자 | 연구목적 및 내용 | 기업유치 중요 요인 |
|-----------|--------------------------|--|
| 최규창(1997) |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전략 | 시장성/노동환경, 원재료 접근 가능성, 교통 등 하부구조, 생활환경/각종 세제 혜택, 기후조건 |
| 김석진(2007) | 직접투자지역 결정요인 | 각종 부담금 감면,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특별법, 체계적 서비스 제공, 산업관련 정보 제공 |
| 이동기(2007) | 기업유치에 대한 행정지원제도의 상대적 중요도 | 행정서비스의 신속한 처리와 제공, 교육훈련보조금·시설보조금 등 재정 지원, 조세감면 |
| 김홍배(2007) | 기업유치 전략 | 수요 지향적 유치전략, 다양한 유치 정책의 연계, 지속적 지원 |
| 김성관(2008) | 기업유치 활성화 | 산업인프라 구축/인센티브, 노동시장/각종 지원제도 |
| 조승현(2011) | 기업유치 성공요인 | 입지요인, 행정·재정 인센티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 공무원의 역할 |
| 문문철(2011) | 투자결정요인과 지원제도 | 보조금 지원, 세제 지원, 행정지원, 금융지원 |

2.2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지원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기업유치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지원제도는 대부분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과 지방신설·증설 투자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지식경제부·한국산업단지공단 2009)

2.2.1 입지보조금

입지보조금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 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 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지보조금은 대부분 지식경제부의 보조금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대전, 울산 등 일부 광역시를 제외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2.2 투자보조금

투자보조금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건축허가 또는 공장 설립 승인 후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투자보조금도 정부의 보조금 지원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강원도를 제외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이외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2.3 교육훈련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은 자기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이 신규로 고용한 상시고용 인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훈련보조금은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설·증설 투자기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하

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조금지원제도를 수도권 이전기업, 수도권 외 이전기업,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콜센터)으로 구분하여 요약하면 <표 2>와 같다.¹⁾

<표 2>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조금지원제도

| 구분 | 지원대상 | 보조사업명 | 지원사항 |
|--|---|--------------------------------|---|
| 수도권 이전 기업 | 수도권 내 3년 이상 사업실적과 상시고용인원 30명이상 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이전 (국비 80%, 도비 20%) ※한도: 기업 당 국비지원액 60억 원 이내 | 입지보조금 | 부지매입비의 45% |
| | | 설비투자보조금 | 설비투자비의 15% |
| | | 교육훈련보조금 | 6개월×60만원 이내 /1인당 |
| | | 국세 감면 | 법인세 6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조특법 63조의 2) |
| | | 지방세 감면 | 취득세·등록면허세 : 면제 재산세 : 7~10년 면제 |
| 수도권 외 이전 기업 | 수도권 외 지역에서 2년 이상 사업실적과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이전 (도비 100%) | 입지보조금 | 부지매입비의 25% |
| | | 설비투자보조금 | 설비투자비의 10% |
| | | 고용보조금 | 12개월×50만원 이내 /1인당(한도 1억 원) |
| | | 교육훈련보조금 | 6개월×60만원 이내 /1인당(한도 1억 원) |
| | 제주도 외 지역에서 공장, 본사를 제주도로 이전 | 지방세 감면 | 취득세·등록면허세 : 면제 재산세 : 5~7년 면제 |
| 텔레 마케 팅 서비 스업 (콜센 터) |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건물을 임차하여 도민 등을 상시 고용인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도비 100%) | 건물임대료 (30명 이상고용) | 임대료의 50%, 3년간(한도 5억 원) |
| | | 시설장비구입비 (30명~100명 초과 고용) | 초기 장비구입비의 50%까지(한도 5억 원) |
| | | 고용보조금 (20인 초과 고용 시) | 6개월×100만원 이내/1인당 6개월 평균임금 70% (한도 3억 원) |
| | | 교육훈련보조금 (20인 이상 고용 시) | 6개월×100만원 이내 /1인당 실 소요비용 (한도 3억 원) |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1) 보조금지원제도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4 자금지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조금 외에 추가적으로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금지원의 내용을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금지원 내용

| 구분 | 시설자금 | 운전자금 |
|------|--|--|
| 지원대상 | 제주로 이전하는 기업, 텔레마케팅서비스업(상시고용 20인 이상 기업) | |
| 용자기간 | 10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
| 대출한도 | 소요자금의 80% 이내(한도 : 40억 원) ※텔레마케팅서비스업 : 임차, 장비구입 및 설치 소요자금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의 80% (한도 : 5억 원)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은 해당 없음 |
| 용자내용 | 부지매입 또는 임차, 건축, 시설장비구입, 기반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연계 운전자금 |
| 금리 | 담보 종류에 관계없이 전면 자율금리 (이차보전율 : 우대기업 3.5%, 일반기업 2.8%) | |
| 처리절차 | 신청 : 제주신용보증재단 검토 후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결정 | |
| 취급은행 | 도내 금융기관 | |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2.2.5 세제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재산세, 취득·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감면 지원제도를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 감면 지원

| 구분 | 대상 | 감면내용 | 비고 |
|---------------|---|---|--------------------------------------|
| 취득세, 등록면허세 | 제주도 외 지역의 본점을 제주도로 이전하는 경우 | 부동산 및 기계장비 취득세 면제 법인등기 및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 ※초과액 산정과 초과액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 안함 |
| | 최근 3년 동안(1회만이라도) 연 100만\$ 이상의 수출기업이 본점 또는 공장을 제주도로 이전하는 경우 | 부동산 및 기계장비 취득세 면제 | |
| 재산세 | 과밀억제권역 지역의 본점을 제주도로 이전하는 경우 | 제주시로 이전 :재산세 7년간 면제 서귀포시로 이전 :재산세 10년간 면제 | |
|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본점을 제주도로 이전하는 경우 | 제주시로 이전 :재산세 5년간 면제 서귀포시로 이전 :재산세 7년간 면제 | |
| | 최근 3년 동안(1회만이라도) 연 100만\$ 이상의 수출기업이 본점 또는 공장을 제주도로 이전하는 경우 | 제주시로 이전 :재산세 10년간 면제 서귀포시로 이전 :재산세 15년간 면제 | |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2.3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업유치 환경

제주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무에 있어서 경제 문제는 중요하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는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현실적인 대안도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40-50대 중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기업을 유치하고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기업유치

환경 중에서 특징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형학적으로 반경 1,200km 이내에 약 10억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을 3시간 비행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2시간 이내 비행거리에 다양한 특징을 가진 인구 5백만 명 이상의 도시 18개가 위성도시처럼 인접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이러한 장점은 항공과 선박으로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지리적 접근의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적 측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2년 12월 생물권보전지역, 2007년 6월 세계자연유산, 2010년 10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유네스코 자연과 학분야에서 3가지를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신비롭고 풍부한 문화컨텐츠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업유치에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대기업이 없다는 약점이 있다. 대기업이 있다면 관련기업 또는 하청 기업 등이 창업되거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이 없으면 관련 산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기업경영과 관련된 전문 기술 및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넷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구조에서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산업구조가 취약하고 고부가가치 기술 집약산업이 없어서 경쟁력이 취약하다. 특히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등 서비스업이 제주경제에서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업은 경쟁업체를 양산하여 열악한 기업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역량 있는 기업이 경쟁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전해야 하는데 제주의 경우 아직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섯째, 타 지역에 비해 숙련도가 낮은 인력수급 여건과 생활인프라가 부족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문화, 주거,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우수 전문가 인력을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업유치 환경에 대한 SWOT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업유치 환경 SWOT 분석

| 강점 | 약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 인접 • 친혜의 자연환경 • 신비롭고 풍부한 문화 콘텐츠 •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등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한계 및 지역시장 규모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구조 취약 • 고부가가치 기술집약적 산업 부재 • 우수인력의 역외 유출 현상 심화 |
| 기회 | 위협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경제규모 확대로 교역 활성화 기대 • 국가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 • 친환경, 생태분야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 기술 발달로 입지 한계 극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도시 및 지역 간 경쟁 심화 • 유사한 성격의 특례 도시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로 인한 1차 산업 위기 • 유가 불안 |

Ⅲ. 사례 분석

3.1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여건 및 Daum 유치 경과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Daum 유치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는 기업유치 전략의 수립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기업유치를 위해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여건을 알아본 후 Daum 유치 경과를 정리하였다.

3.1.1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여건 분석

기업유치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잠재 역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 도내총생산, 산업구조, 1인당 도내총생산 등의 자료를 정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 여건

(단위 : 십억원, %)

|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 ○ 인구(천명)1) | 545.5 | 546.3 | 546.9 |
| 전국인구대비 구성비율(%) | 1.1 | 1.1 | 1.1 |
| ○ 도내총생산 | 8,833.0 | 9,647.8 | 10,317.5 |
| 전국대비 구성비율(%) | 0.9 | 0.9 | 0.9 |
| ○ 산업구조(%) | 100 | 100 | 100 |
| · 농림어업 | 17.6 | 19.0 | 17.7 |
| · 광공업 | 3.1 | 4.1 | 4.4 |
| (제조업) | (3.0) | (3.8) | (4.2) |
| · 전기,가스,수도업 | 1.0 | 1.2 | 1.4 |
| · 건설업 | 8.0 | 8.1 | 8.2 |
| · 서비스업2) | 70.3 | 67.6 | 68.3 |
| ○ 1인당 도내총생산(천원)3) | 16,193.5 | 17,661.7 | 18,865.4 |

주 :1)통계청 시도별 추계인구임

2)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기타서비스업

3)1인당 지역내총생산=도내 총생산/도내 총인구

*제주특별자치도 “2011년 통계연보”

구체적으로 2008년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고 전국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1.1%를 벗어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도내총생산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로 동일하지만 규모는 2008년에 비해 2010년도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구조를 보면 서비스업이 대략 70% 정도, 1차 산업은 20%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의 비중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낮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10년 말 현재 전국의 사업체수는 3,355천개소로 전년보다 1.9% 증가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체수는 45,830개소로 전년보다 -0.3%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3년 이후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9년도에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10년 말 현재 전국 사업체 종사자수는 17,647천명으로 전년보다 4.9% 증가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종사자수는 202,676명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체수 증가가 적었던 2003년 이후 종사자수는 감소하였다가, 2005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9년에는 3.8% 증가한 사업체 수에 비례하여 종사자수도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단위 : 개소, 명, %)

| 구 분 | 전 국 | | 제주특별자치도 | | 전 국 | | 제주특별자치도 | |
|------|-----------|-----|---------|------|------------|-----|---------|------|
| | 사업체 수 | 증감률 | 사업체 수 | 증감률 | 종사자 수 | 증감률 | 종사자 수 | 증감률 |
| 2000 | 3,013,417 | 2.9 | 38,847 | 4.1 | 13,604,274 | 5.3 | 154,005 | 4.0 |
| 2001 | 3,036,554 | 1.1 | 40,285 | 3.8 | 14,109,641 | 3.7 | 162,314 | 6.7 |
| 2002 | 3,131,963 | 2.8 | 41,756 | 3.7 | 14,608,322 | 3.5 | 173,809 | 7.1 |
| 2003 | 3,187,916 | 1.8 | 42,136 | 0.9 | 14,729,166 | 0.8 | 169,787 | -2.3 |
| 2004 | 3,189,890 | 0.1 | 42,531 | 0.9 | 14,818,754 | 0.6 | 167,612 | -1.2 |
| 2005 | 3,204,809 | 0.5 | 43,305 | 1.8 | 15,147,471 | 2.2 | 171,844 | 2.5 |
| 2006 | 3,226,569 | 0.7 | 43,609 | 0.7 | 15,435,766 | 1.9 | 176,648 | 2.8 |
| 2007 | 3,262,925 | 1.1 | 44,246 | 1.5 | 15,843,674 | 3.2 | 178,982 | 1.3 |
| 2008 | 3,264,782 | 0.1 | 44,307 | 0.1 | 16,288,280 | 2.2 | 180,882 | 1.1 |
| 2009 | 3,293,558 | 0.9 | 45,990 | 3.8 | 16,818,015 | 3.3 | 200,130 | 10.6 |
| 2010 | 3,355,470 | 1.9 | 45,830 | -0.3 | 17,647,028 | 4.9 | 202,676 | 1.3 |

주)사업체란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개개의 상점, 사무소, 영업소, 은행, 학교, 병원, 여관, 식당, 학원, 교회, 사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소유권 또는 단일 통제 하에 재화의 생산·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경영단위를 말한다.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체조사보고서(2010년 기준)

3.1.2 Daum 이전 경과

2004년에 시작되어 2012년 4월에 본사를 이전한 Daum의 제주이전 경과는 <표 8>과 같다. 본사 이전으로 100여명 직원이 추가로 이주하게 되었고, 이미 이전한 다음 글로벌 미디어센터 직원까지 포함하면 약 35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되어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8>다음커뮤니케이션의 제주 이전 경과.

| 구분 | 내용 |
|---------|---------------------------------|
| 2004. 3 | 본사 제주 이전 협약 체결(제주도, 제주대, Daum) |
| 2004. 6 | 미디어 본부 제주 이전 (80명 근무) |
| 2005. 2 | 글로벌 미디어 센터 착공(제주시 오동동) |
| 2006. 2 | 글로벌 미디어 센터 준공(제주시 오동동, 250명 근무) |
| 2007.12 | 첨단과기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계약 체결 |
| 2009.12 | 첨단과기단지 내 신사옥 착공 |
| 2011.11 | 첨단과기단지 내 신사옥 건축물 사용인가 |
| 2012. 3 | 첨단과기단지 내 신사옥 본사 이전 등기 |
| 2012. 4 | 첨단과기단지 내 신사옥 오픈 |

*자료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12.04.05.

3.2. 성공요인 분석

Daum이 본사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성공적으로 이전시킬 수 있었던 요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3.2.1 장기 계획

8년 전인 2004년에 시작된 본사 이전 계획은 2012년 4월에 본사를 이전했지만 아직

도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Daum의 전체 임직원 1,300여 명 중에 제주에 근무하는 인력은 30% 정도를 차지하며, 나머지 직원들은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Daum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는 본사를 이전하는 계획을 장기 플랜으로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단번에 본사를 통제로 옮기는 ‘툭다운’ 방식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장기 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Daum의 전략이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Daum의 제주 이전은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Daum의 제주이전이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라 이전해야 하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Daum의 제주 이전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효율적인 측면을 개선하고, 창의적 업무환경 조성과 함께 일과 삶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개인과 기업,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2.2 IT 기술의 발달

IT 기업입장에서 볼 때 서울은 지식과 정보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고, 제주는 그 반대의 변방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Daum의 경우 서울을 떠나 제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 요인 중의 하나는 IT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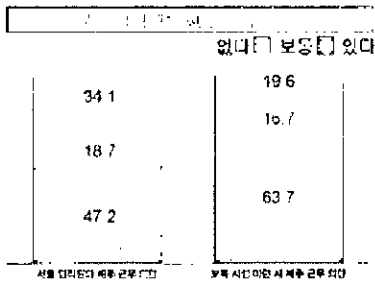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달은 전통적인 산업 입지론이 갖고 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통적인 제조 기업의 경우는 원료, 시장, 물류가 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그러나 IT, BT, CT 등 첨단산업에서는 이러한 요소 외에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를 모을 수 있는 삶의 질도 입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즉, 종업원들이 기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종업원들이 좋아할 곳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시대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식 노동자들의 생활 패턴 변화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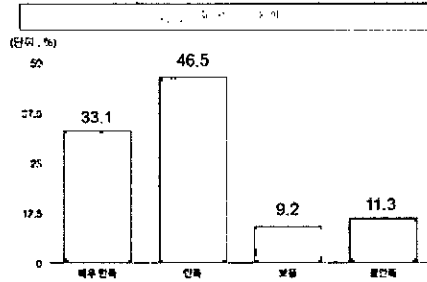
3.2.3 회사의 지원

Daum은 제주 이전 직원들에게는 결혼 여부와 자녀수에 따라 매월 70만-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택 지원금과 자녀 교육비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이다. 여기에 명절 항공권, 구내식당에서 아침·점심·저녁 무료 제공, 빨래방 무료 이용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한경비즈니스, 2012.05)

Daum이 제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만족도 조사에서 79.6%가 제주 생활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서울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의 47.2%가 제주에서 근무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을 하였고 특히, 보육시설이 마련된다면 근무하겠다는 응답은 63.7%였다.



자료: 다음커뮤니케이션, 2011년



자료: 다음커뮤니케이션, 2011년

Daum은 성공적인 제주 정착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Daum이 앞으로 제주에 직원들을 위한 보육시설 등 복지시설을 더 확충해 나간다면 제주로의 이전은 더욱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3.2.4 제주특별자치도의 적극적 지원

2002년부터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로 변화하기 위하여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왔다. 그리고 2006년 기존의 시군이 폐지되고 하나로 통합되는 형태로 행정구호가 개편되면서 행정효율이 높아졌고, 4차례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유치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해 오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 중인 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은 국가산업단지를 조

성하고 기업유치를 유도하는 제주 성장의 핵심 프로젝트이다. 즉,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주 지역의 산업구조 개편, 신규 고용 창출, 정주 인구 증가, 경제력 제고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을 보존하면서 경제 발전도 이룰 수 있는 산업 및 기업유치에 목표를 두었다. 이런 차원에서 IT산업은 대단위 시설 투자가 없더라도 비즈니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기업유치 대상이 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IT 기업유치를 위해 산업시설 용지를 제공하고, 지식산업센터, 스마트워크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을 지원하였으며, 세제감면, 자금지원 등의 정책적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였다.

이 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아이디어 창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업유치 전략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음으로써 제주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이미지가 향상된 부분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3.3 시사점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약 요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제약요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유치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Daum의 제주이전 성공요인 분석에 기초하여 앞으로의 기업유치에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3.3.1 협조체계 구축

기업유치에 성공하려면 관련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획력 그리고 지역에 있는

전문가 집단과의 협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에 있는 대학교 및 연구단체가 갖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3.2 선택과 집중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임기응변식의 대응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정한 장기 비전에 맞는 로드맵을 만들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모든 분야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강점이 있다는 생각으로 모든 분야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 및 환경에 맞는 분야의 기업 유치 노력을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방향과 초점이 바뀐다면 기업 유치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정책이나 사업은 일관성을 가지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3.3 공격적 마케팅

기업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업유치에 필요한 지원을 얻기 위해 중앙 정부를 설득하거나 타 지역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려면 타 지방자치단체들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주거환경, 교육환경, 기타 생활환경 등 투자유치에 필요한 모든 요인들을 투자유인책으로 제시함으로써 이전가능 기업과 긴밀한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공격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3.3.4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치하고자 하는 핵심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요한 기업의 유치는 관련기업들의 동반 이전을

가져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치할 수 있는 업종을 명확히 선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지역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3.3.5 지원시스템 구축

기업유치 단계별로 행정서비스를 일관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지역단체, 학계 및 전문가 집단, 이전을 완료한 기업 등이 참여하는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는 출향 인사를 중심으로 투자유치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공적인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이 요구하는 속도 이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일관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모든 과정을 체계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유치에 성공한 기업이 지역에 완전하게 정착할 때까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즉 해당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한 기업의 유치 성공이 또 다른 기업의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용해 나가야 한다.

IV. 결 론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역의 고용창출, 소득증대, 선진기술 및 기업문화 전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자치단

체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하여 저렴한 부지 제공, 조세감면,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지원,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유치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기업유치 성공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Daum 유치의 성공 요인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Daum은 본사 이전을 기업경영자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기업의 장기 계획으로 실행에 옮겼다는 점이다.

둘째, IT기술의 발달이다. IT기술의 발달은 기존 산업의 입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였다.

셋째,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이다. 제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넷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차례의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시켰고,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여 IT와 BT 등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

Daum의 제주이전 성공요인 분석에 기초하여 앞으로의 기업유치에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은 협조체계 구축, 선택과 집중, 공격적 마케팅,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지원시스템 구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제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기업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번에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제주 이전으로 기업유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제2의 다음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계속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성공한 기업유치에 대한 사례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다음 번 기업유치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작성 작업도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면 기업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방이전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업무의 비효율성, 노동력 분산,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석진(2007),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지역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성관(2008),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 : 전주시 국내기업 유치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흥배(2006), “원주시 기업유치 전략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문철(2011), “기업의 지방투자 결정요인과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홍윤(2005), “충청지역 기업도시 유치전략과 과제,” 충북발전연구원, 지역정책연구 제 16권 제1호, 35-68.
- 박홍식, 공성경(2001), “투자유치 마케팅의 문제 : 지방정부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중앙행정논집 제15권 2호, 173-198.
- 윤갑식(201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업종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학회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4권 4호, 616-627.
- 이동기(2007), “AHP를 활용한 지방정부 기업유치 행정지원제도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1권 2호, 189-204.
- 이성봉(2010),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독경상학회, 경상논총, 제28권 1호, 97-119.
- 이우배(2001), “지방의 외국기업유치 활성화방안 : 경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국토 2001년 10월호, 2-139.
- 전영옥 외(2003), 《지역경제 새싹이 돋는다》, 삼성경제연구소.
- 조승현(2011),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회,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5권 1호, 255-274.
- 지식경제부, 한국산업단지공단(2009), 《참 쉽지요!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제도》.
- 최규창(1997), “전략적 지역마케팅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전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제주특별자치도 “2010년 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2011.

제주특별자치도 “2011년 통계연보.”

한경비즈니스, 2012.05.16. 한국경제신문.

Burstein, Melvin L., and Arthur J Rolnick. 1994. Congress Should End the Economic War Among the States.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Annual Report. Cairncross, Frances. 1995. The Death of Distance. The Economist, September 30, 5-6.

